

수급안정과 가축능력개량으로 질적 향상 유도

— 양계협회 통해 생산조절 유도 예정 —

지 설 하

농수산부 축산국장

'86 축산진흥 시책

I. 머리말

지난 '85년은 소값이 불안정하여 우리 축산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몇년전 까지만 해도 쇠고기는 수요량에 비하여 국내 공급 부족으로 쇠고기와 소를 수입하여야 했고 축산시책중 소증식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불과 몇년 사이에 소사육 두수는 크게 늘어나 쇠고기의 자급기반은 앞당겨 놓고도 소값이 떨어져 풍요속에 빈곤을 실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축산업은 10여년 전만 해도 부업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축산업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로 축산물의 소비도 크게 늘어나면서 축산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 하였다는 것은 누구나도 인정 하고 있다.

가축사육 두수를 보면 소가 '60년도에 불과 100만두에서 '85년에는 약 3배, 돼지는 2배, 닭 4.4배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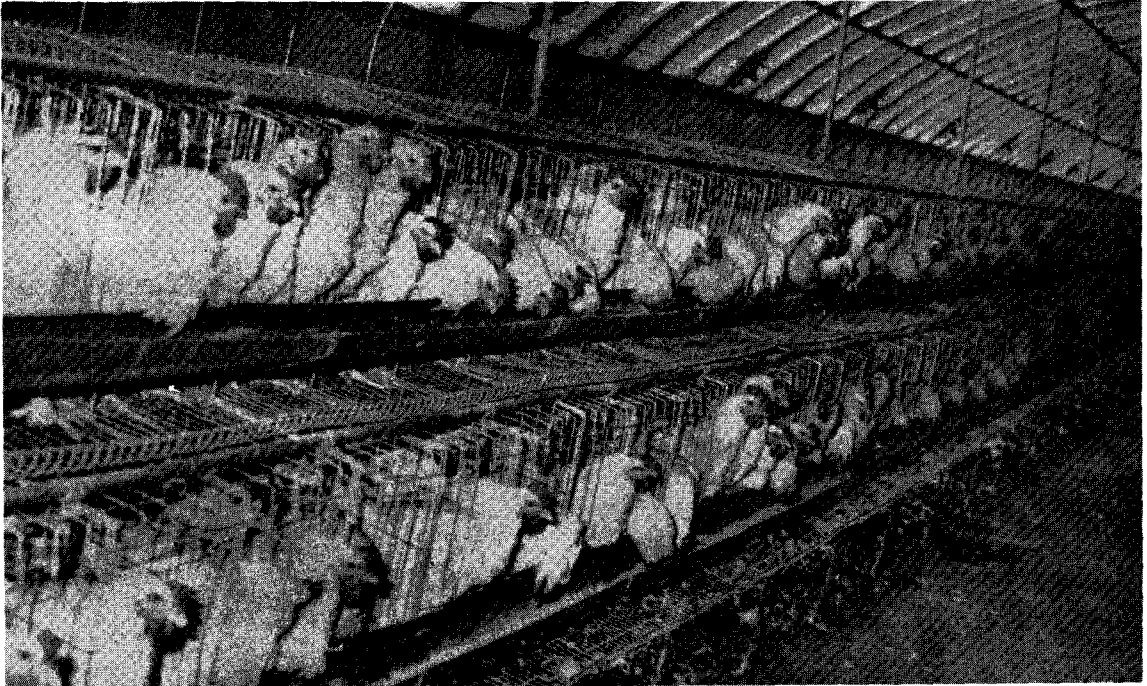
〈표 1〉 가축사육동향

		'60	'70	'80	'84	'85.6	9
한(육)	우	1,011	1,274	1,427	2,318	2,654	—
소	젖 소	1	23	207	334	380	—
	계	1,012	1,297	1,634	2,652	3,034	—
돼	지	1,397	1,126	1,784	2,958	2,825	3,014
닭		12,030	23,633	40,130	46,483	52,910	54,219

또한 축산물 소비량을 보면 '60년도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80\$에 불과한 당시 육류 소비량은 8만 9천톤으로 1인당 3.5kg에 불과하였으나 '84년도에는 1인당 GNP가 1,998\$로 25배가 늘어났고 육류도 6.4배가 늘어난 56만 5천톤으로 1인당 13.9kg를 소비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조수입중 축산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65년의 2.5%에서 지난 '83년에는 25.4%로 크게 신장 되어 농촌의 새로운 소득품목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근래 소사육 두수가 늘어나면서 가격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축산물의 생산과 소비 구조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는 본래 조사료(풀사료) 위주로 사양하여야 생산비를 줄이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수 있는 것이나, 농후사료(배합사료) 위주로 사양하기 때문에 무계획적인 사육두수 증대와 생산비 가중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돼지는 지난해 양돈가격의 안정으로 사육두수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대로 방치 한다면 '86년 하반기에 가서는 또 한차례의 돼지과동이 예측 된다.

따라서 '86년 한해는 이러한 축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축산기반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표 2〉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구 분	65	70	75	80	83
국민 1인당 GNP	105\$	248	591	1,605	1,880
국민 총생산액중 농업비중	33.0%	23.1	21.8	12.2	11.7
농업생산액중 축산물생산액비중	11.4	14.6	11.4	19.1	30.7
농가조수입중 축산수입비중	2.5	3.1	7.4	12.1	25.4
국민섭취 단백질중 축산물비중	16.1	16.4	21.4	27.4	28.5

〈표 3〉 축산물 소비동향

구 분	1960 (A)	1965	1970	1975	1980	1984 (B)	B/A		
인구(천명)	24,954	28,705	31,435	35,281	38,124	40,578	163%		
1인당GNP	80	105	248	591	1,605	1,998	2,498		
총 소 비 량	육	우육	13	27	37	70	100	107	823
	류 (천 톤)	돈육	58	56	83	99	242	340	586
		계육	18	14	45	56	91	118	656
		계	89	97	165	225	433	565	635
	우유(천톤)	—	10	50	162	412	834		
(제란백만개)	819	856	2,456	2,896	4,543	4,939	603		
1인당 소 비 량	육	우육	0.5	1.0	1.2	2.0	2.6	2.6	520
	류 (kg)	돈육	2.3	1.9	2.6	2.8	6.3	8.4	365
		계육	0.7	0.5	1.4	1.6	2.4	2.9	414
		계	3.5	3.4	5.2	6.4	11.3	13.9	379
	우유(kg)	—	0.4	1.6	4.6	10.8	20.5		
계란(개)	33	30	78	82	119	125	397		

II. '86 축산시책 기본방향

상기와 같은 여건하에서 '86년도 축산시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소값의 조속한 회복과 돼지가격등 축산물의 지속적인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둘째, 안정적인 소사육기반을 위한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며,

셋째,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 하므로서 축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통한 양축농가 소득을 증대토록 할 것이다.

또한 소를 비롯한 돼지 닭 등 가축의 자급기반이 구축된 실정하에서 종전의 증식 위주에서 '86년부터는 수급안정과 가축의 능력개량으로 질적증식 위주로 전환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축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 가. 수요에 알맞는 적정사육두수 유지
- 나. 축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
- 다. 산지와 소비자가격의 연동기능 강화.

2. 조사료 증산 기반확충

- 가. 산지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내실화.
- 나. 담리작, 청예사료작물 재배 확대.
- 다. 건초증산
- 라. 볏짚 등 농수산물 가공처리 이용.

3. 사료수급안정

- 가. 도입곡종 및 도입선의 다양화.
- 나. 배합사료 절감으로 외화절약.
- 다. 사료품질 향상.

4. 가축능력향상과 기술지도강화

- 가. 우량종축의 생산보급체계 확립.
- 나. 종축의 등록과 검정실시.
- 다. 종축의 혈통관리 개선.
- 라. 축산기술지도 강화.

5. 가축위생 및 방역강화

〈표 4〉 축산물수요전망(잠정)

구분	'85	'86	'86/'85	비고
육류	587	613	101.8%	전량국내산으로 자급
쇠고기	122	129	105.7	
돼지고기	346	361	104.3	
닭고기	119	123	103.4	
우유	1,000	1,115	111.5	
계란	271	280	103.3	

- 가. 가축질병 예찰의 신속화.
- 나. 수출입 검역의무 강화.

III. '86축산 주요 시책

1.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가. 한우(쇠고기)

소는 사육두수의 증가로 쇠고기 자급기반이 구축되고 소값이 불안정한 현상태 하에서 쇠고기는 전량 국내산으로 공급하며, 적정 사육두수로 감축시키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250kg 중압소 10만마리를 수매하고 자질이 불량하거나 미성숙 암소에 대하여는 인공수정을 제한 하므로서 송아지의 생산 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쇠고기 소비확대를 위하여 읍면단위 간이도축장 시설을 '86. 4. 30까지 시한부로 활용토록하여 도축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축에 소요되는 공과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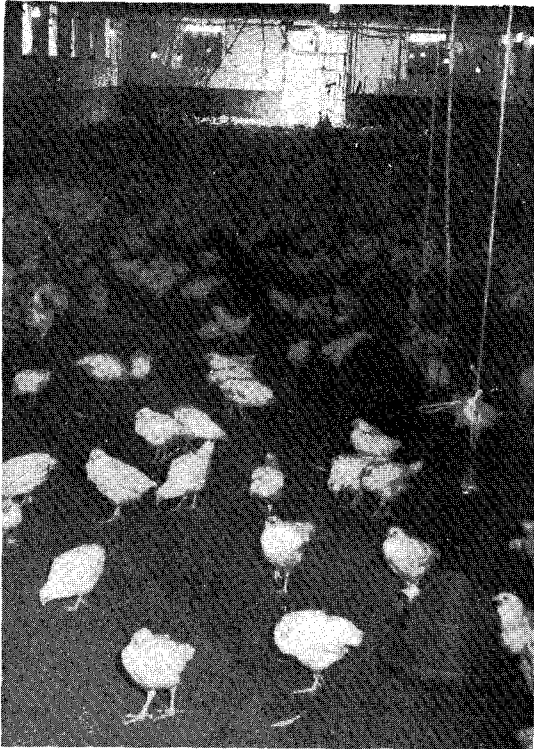
소값의 안정은 근본적으로 많은 소사육두수를 감축하기 위하여 쇠고기 소비를 촉진하는데 있다고 본다.

포장육은 그간 축협과 한냉에서 주로 생산 판매하여 왔는데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어 판매업소를 현재 4천여개소에서 6천여개소로 늘리고 판매가격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하므로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하는 한편 쇠고기 연동가격제도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관광호텔용 쇠고기도 국내생산분으로 점차 대체 해 나갈 것이다.

나. 젖소(우유)

지금까지 우유는 소비량이 꾸준히 늘어나 낙농경영의 안정을 기하여 왔으나 지난해부터 소비보다 생산이 늘어 나면서 우유가 남아돌아 그 소진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 결과 재고분유의 물량도 '85년 하반기부터 점차 줄고 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우유체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1일 290여만명의 국민학생에게 우유급식을 지속하기 위하여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축산진흥기금에서 35억여원을 지원토록 계획하여 우유소비저변을 확대하고 보조지원이 없는 중고생에게 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산면에 있어서도 생산능력이 나쁜 저능력 우는 과감히 도태처분하여 절대생산량을 줄이고 생산된 송아지에 대하여도 모유 먹이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우유체화로 낙농가에 유대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다. 돼지, 닭(돼지, 닭고기, 계란)

돼지와 닭은 부업단계에서 벗어나 전기업화되고 있으며 민간주도의 생산조절기능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돼지와 닭은 지난 '8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축산관측을 보다 강화하여 종전의 가격중심에서 수급전망 등을 보완발전시키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 하므로써 양축농가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스스로

생산조절기능을 발휘토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축산물의 생산 및 수급조절기능을 위하여 지난 '84년에 축산법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자는 등록(모든50두 이상 500두 미만, 육계10,000수, 산란계 30,000수 이상) 또는 허가(모든 500두이상)토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에는 생산과 수급조절을 위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그 기능을 보다 신축성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한편 부업 생산농가를 보호 하고 생산 조절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업농가와 축협, 기업양축가 육가공공장과의 계열화 생산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것이다.

계열생산은 계열주체가 농가와외의 계약에의거 자본과 사료 및 기술지도를 해주고 생산축은 계열주체가 책임수매 함으로서 생산지 가격과 관계 없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계열화사업은 점차 확대 하여야 될 것이다. '86년에는 축협과 민간으로 계열주체를 이원화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축협계열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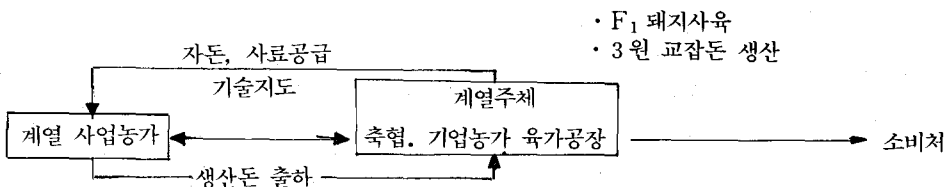
축협생산조직을 통한 계열화 생산사업을 위해 축산진흥기금에서 34 억을 투자하여 종돈 880두 규모의 직영종돈장을 금년중에 설치하고 지역축협 3 개소 이상을 선정 자체자금으로 추진 할 것이다.

민간계열화 사업

업체수	생산두수 (1 회전)	사 업 비		
		계	용자	자비
3 ~ 5 개소	천두	백만원	750	750
	15	1,500		

- 두당지원액 : 50 천원
- 업체당지원액 : 150 ~ 250 백만원
- 지원(용자)조건 : 축산진흥기금(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10%)

돼지계열생산사업 체계모형



- F₁ 돼지사육
- 3월 교잡돈 생산

2. 사료수급 안정

가. 사료수급계획

'86년도 사료총수요량(조사료, 농후사료포함)은 12,696천 M/T으로 이중 55%에 해당하는 7,026천톤은 농후사료로 공급할 계획이며 농후사료중 89%인 6,231천톤은 배합사료로 기타 795천톤은 농가자급 생산분으로 공급 할 것이다.

조사료는 전체 수요량의 45%인 5,670천톤 중 초지, 사료작물, 청애작물등 개량목초로 43%인 2,454천톤을 기타 57%인 3,216천톤은 볏짚, 산야초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후사료 수급안정을 위하여 옥수수등 곡류 3,950천톤, 타피오카 등 300천톤 콩 765천톤 등 총 5,146천톤의 배합사료 원료를 수입 할 계획이다.

나. 국내부존자원 개발이용.

● 초지조성

'86년도 신규초지는 '85년보다 1,000ha가 늘어난 6,000ha를 조성할 계획인데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여건에 따라 조성방법도 완전 경운에 의한 경운초지와 경사도가 심하거나 경운이 어려운 지역은 불경운방법과 임지를 이용한 임간초지로 구분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조성 대상자도 일반양축농가를 위한 일반초지와 농업계학교(농고, 농진)실습용초지 및 축협직영목장의 시범초지로 구분하여 용도에 맞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초지조성에는 총 66억(보조 18, 융자 36, 자비 12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경운초지는 ha당 1,212천원, 불경운초지는 952천원, 임간초지는 774천원으로 일반초지는 1단지 50ha미만 규모로 허용하여 10ha이하는 보조 20% 융자 60% 자비 20%, 11~50ha미만은 융자 80% 자비 20%로 조성하며 실습용초지는 10ha 규모로, 축협시범초지는 40ha이상

〈표 6〉 '86 초지조성 계획

사업명	허용기준	자 원 계 획
일반초지	ha 5,500	1~50ha미만 · 1~10ha이하; 보조20%; 융자60% · 11~50ha미만; 융자 80%
실습용초지	140	10ha미만 · 보조 100%
축협시범초지	360	40ha이상 "
계	6,000	

로 전액 보조에 의거 조성 할 것이다.

● 사료작물 재배

사료작물은 밭을 이용한 청애사료작물을 '85년에 69천ha에서 100천ha로 늘이고 겨울철 노닐밭을 이용한 답리작 사료작물재배도 '85년에 85천ha에서 '86년에는 100천ha로 늘이는 한편 이중 75천ha에 대하여는 국비와 축산진흥기금을 지원하여 재배토록 할 계획이다.

〈표 7〉 '86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계획

	사업량	사 업 비				
		국 비	지방비	기금	자비	계
국비 지원 사업	32,290 ha	백만원 475	475	-	1,424	2,374
축산진흥기금 "	43,000	-	-	1,264	1,896	3,160
자 력 사 업	24,710	-	-	-	1,816	1,816
계	100,000	475	475	1,264	5,136	7,350

● 볏짚(보리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농촌에서 손쉽게 구할수 있는 볏짚과 보리짚을 암모니아로 처리하므로써 사료가치를 증진시켜 이용하는 사업을 지난해 15천호, 45천톤에서 '86년에는 30천호에 90천톤으로 늘이고 암모니아 가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내산 곡류의 이용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내산 곡류중 옥수수 59천톤, 보리 127천톤, 콩 10천톤을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하여 도입원료의 대체효과를 기하도록 할 것이다.

다. 도입사료원료 절감

● 도입곡물 사용감축

사료곡물의 사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종전까지 평균 65%를 원료로 사용해 왔으나 이를 64% 이하로 감축하고 타피오카, 루핀씨드 등 값싼 신규원료를 많이 쓰도록하고 양축농가에게는 사양 기술을 개선토록 하는 한편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하여 사료 절감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

사료원료는 도입선과 곡종을 다양화하므로써 국제정세 등 여건변화에 대처하고 1~2개월분의 재고수준을 항시 비축할 수 있도록 원료 저장시설도 확충할 것이다.

● 배합사료 가격안정과 품질강화

민간 배합사료 공장과 축협공장의 시장점유 균형

유지를 위해 축협중앙회 사료공장 2개소(안동, 횡성)를 금년중으로 건설하며 사료품질도 자체검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료품질이 더욱 개선되도록 할 것이다.

3. 축산물 유통개선

가. 산지가축시장 운영개선

산지가축시장은 생산농가의 수입원이 되는 주요한 유통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오랜 전통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산지가축시장의 운영개선을 통하여 공정거래정책과 각종 유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첫째, 가축시장의 거래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이다.

가축의 거래는 중개거래에서 경매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84개소에 불과하던 경매시장을 136개소로 52개소로 늘이고 가축거래상담소를 마련하여 유통상담소로 이용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할 것이다.

둘째, 양축농가의 시장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과 위탁판매제를 도입하고,

셋째, 중개인의 교육강화로 자질을 높이고 시장별 담당책임제를 실시할 것이다.

나. 도축장의 기능강화

산지도축장은 단순한 도축기능만을 담당해 왔으나 지역축협에서 운영토록 하므로써 계통출하를 통한 도축, 가공, 판매 등 종합식품센터화하는 공영도축장 기능으로 전환토록 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금년에는 지역축협에서 도축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40개 조합에 대하여 민간 또는 관영 도축장을 인수케하여 공영화할 계획이다.

다. 도매시장 확충

서울 가락동에 설치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축산물공관장을 금년 3월중으로 개장시키고 경매방법도 전자식 응찰기록 판매제 실시로 공정성을 높이고 중부지역에도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계획을 검토할 것이다.

라. 소비자유통

소비자유통개선을 위하여 축협과 한냉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는 포장육생산 시설을 늘려 생산성을 제고하고 판매업소와 직관장을 확충하는 한편 부위

별 차등가격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4. 가축개량 및 축산기술지도강화

축산시책은 종전의 양적증식에서 질적증식 체제로 전환토록하기 위하여 가축의 개량과 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가축인공수정사업 개선

가축인공수정사업은 민간수정소가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축협인공수정은 민간과의 중복을 가능한 피하여 인공수정이 미치지 못하는 산간 오지의 양축농가에 골고루 보급되도록 하고 올해에도 소위주의 수정을 실시할 것이며, 우량정액의 생산 공급과 수정사 기술향상을 위해 기술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수정시 사용하는 종모우도 이제는 아무 것이나 사용하여 생산만 하면 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혈통의 근친관계를 잘 파악될 수 있도록 정액의 혈통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가축능력검정 실시

한우

한우는 지난 70년대까지만 해도 농경을 위한 역용우로 사육되어 왔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업의 기계화로 한우는 고깃소로 사육목적이 전환됨에 따라 육우로서의 개량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우 종모우의 선발도 외모심사의 선발보다는 능력검정을 통하여 고깃생산 유전능력을 사전에 검사하여 선발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실시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령지 시험장과 각도종축장은 1차로 한우번식단지에서 자질이 우량한 숫송아지를 구입하여 6개월간 사육하여 증체성적 외모, 정액성상 등 종합심사를 하여 우수종축을 선발하는 당대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여기서 선발된 숫송아지는 축협한우개량사업소(서산종축목장)에서 후대검정(자손의 능력을 검정하여 예비소의 능력을 검정)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우량종모우를 골라 인공수정용 종모우로 이용하게 된다.

젖소

젖소는 축협중앙회와 한국종축개량협회를 통하여

산유능력검정을 실시하게 된다.

돼지·닭

돼지는 대한양돈협회 종돈검정소로 하여금 종모돈의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우량종모돈은 경매에 의하여 양돈가에게 공급하는 현행 기능을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닭도 대한양계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닭 경제능력 검정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능력 검정사업을 계속 실시해 나갈 것이다.

●종축검사 및 등록사업확대

종축검사는 종전까지는 종모우 선발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인공수정 보급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종빈우 검사 위주로 전환하고 선발된 종빈우는 종축으로 등록토록하고 젖소·돼지, 토끼에 대해서도 우량종축을 선발등록하므로써 가축개량기반을 구축토록 할 것이다.

●축산진흥대회 개최

축산진흥대회는 우량종축을 선발하여 인공수정용 종모우를 확보하고 가축개량 의욕고취를 위해 전국대회와 도단위(시군단위)대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며 금년도에는 '84년에 이어 제11회 대회가 되며 출품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에 한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한우순수계통 번식단지사업

한우의 순수혈통보전과 순수방법에 의해 육우로 개량을 위해 지난 79년부터 전국 8개지구(도당 1개소)에서 우량한우를 선발 등록하고 지정종모우에 의한 선발과 도태를 강화하므로써 점차 고등등록우화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참여의욕 고취를 위해 등록우가 송아지를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등록 단계에 따라 두당 5~7만원 상당의 사료를 지원할 것이다.

●축산기술지도

축산경영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반농사보다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기술을 보급하여야 하므로 겨울철 농한기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축협과 농촌지도소 기술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5. 축산물 위생 및 방역

축산물 검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115명의 축

산물검사원을 배치하고 도축장의 시설근대화 사업과 위생도계육의 유통의 정착을 기할 것이다.

또한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검진과 진단기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강원도와 전북에 각 1개소씩의 위생시험소를 증설할 계획이다.

한편 가축진료사업의 일환으로 공수의 324명을 전국에 배치하고 수의사 보수교육과 수의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6. 맺는 말

금년도의 축산시책은 무엇보다도 소값의 조속한 회복과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돼지값의 지속적인 안정시책추진과 닭고기, 계란값을 비롯하여 우유체화 방지 등 축산업안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축산물의 수급조절로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금년도 축산시책의 중점 목표가 될 것이다.

또한 조사료증산, 축산물유통구조개선 가축개량시책 등의 시책도 계획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축농가나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기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장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사료의 자급과 축산물의 조절기능은 미흡하므로 이러한 점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축산업은 지난날과 같이 아닌 방법으로 축산을 경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술과 경영의 합치로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축산발전에 기여되는 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양축농가는 꾸준히 연구노력하여 새로운 기술과 경영정보를 습득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고 볼때 축산물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지난날 우리의 경제가 빈약한 자원의 여건하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했듯이 우리축산 분야도 축산인 모두가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에 노력하고 꾸준한 기술향상과 생산비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길만이 2,000년대의 경제발전 속에 성장산업으로서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